

남한드라마* 해석을 통한 북한 주민의 심적 습성에 관한 연구

-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의 도상해석학을 중심으로 - **

현주 (제1저자, 경기대학교)

안지호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국문요약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 독일 출신의 미술사가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는 “고딕건축과 스콜라철학(Gothic Architecture and Scholasticism)”이라는 비교적 적은 분량의 책을 썼다. 이 책에서 파노프스키는 분야가 다른 중세미술과 중세철학의 문화적 평행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파노프스키는 중세미술과 중세철학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심적 습성을 규명함으로써 고딕건축과 스콜라 철학 간의 상동성 내지 상사성을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는 파노프스키가 발전시킨 도상해석학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심적 습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북한 이탈 주민과의 면접을 통해 이들에게 인상적이었던 다양한 남한드라마의 이미지를 구성 및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의복코드, 주거개념, 남녀관계관 등에 내재하고 있는 각각의 문화적 코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드라마 이미지에 대한 도상학적 분석을 마친 후 각각 문화적 코드의 공통적인 조건 혹은 작동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심적 습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북한 주민들의 남한드라마 해석에 대한 도상해석학적 접근을 통해 이들의 심적 습성인 결핍과 관계의 비대칭성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에르빈 파노프스키, 도상해석학, 심적 습성, 남한드라마.

*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 영화 등을 총칭하여 드라마라 칭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통일부의 신진연구자 정책연구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또한 부분적으로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4898).

I. 북한 유학생의 영화 해석과 심적 습성

이 연구는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자는 약 6·7년 전 독일의 한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독일어 수업에서 북한 출신의 학생과 같이 수강한 경험이 있었다. 한 번은 수업시간에 “무임승객(Schwarzfahrer)”라는 독일의 단편영화를 보고 학생들이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영화는 흑인 청년이 할머니의 옆자리에 앉게 되면서 시작한다. 할머니는 옆에 앉은 청년을 쏘아보며, “왜 하필이면, 내 옆자리에 앉느냐?”고 노골적으로 불평한다. 할머니의 불평은 점차 독일의 외국인 이주자에 까지 확대된다. 할머니의 불평이 고조되었을 때 무임승차 단속원이 시전에 오른다. 무임승차 단속원이 할머니의 표를 검사하러 오기 전에 흑인 청년은 할머니의 승차권을 재빨리 빼앗아 삼킨다. 결국 승차권이 없는 할머니는 단속원과 함께 시전에서 내리며 영화는 끝이 난다.

〈사진 1〉 독일의 단편영화 “Schwarzfahrer(1992)” 주요 장면¹⁾



1) <https://www.youtube.com/watch?v=il2wnw5CgII>.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할머니의 인종 차별적인 태도를 지적하였다. 그런데 북한 출신 학생만은 예외적으로 흑인 청년이 할머니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년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당시 연구자는 북한 학생의 영화 해석에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당혹감은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왜 그 당시 북한 학생은 다른 학생과 달리 흑인 청년에 비판적이었을까? 북한 학생의 영화 해석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서 본 연구가 출발하였으며, 연구자는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미술사가 파노프스키의 방법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Ⅱ. 아방가르드(Avant-garde)적 연구를 위하여: 연구 방법과 선행연구

1. 도상해석학과 미술작품 해석의 세 층위

독일 출신의 미술사가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는 도상해석학을 통해 미술작품을 읽는 의미의 세 층위를 구분하였다. 첫 번째 층은 가장 표면적인 층위로 미술작품의 자연적 의미(natural meaning)이다. 이는 우리가 미술작품을 해석할 때 우리의 상식(자연적 경험)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해석의 차원이다. 두 번째 층위는 규약적 의미(conventional meaning)이다. 규약적 의미는 미술작품의 도상, 예를 들면 서양회화에서 복숭아를 들고 있는 여성상은 진실성을 의미한다고 인지하는 것이다. 서구회화의 규약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문화적 코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단계는 현상(자연, 상식)적 의미를 넘어 문화적 맥락 속에

서 획득되는 의미에 주목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층위는 심층적 차원으로 파노프스키가 본질적 의미(*intrinsic meaning*)라고 칭하였다. 파노프스키에 따르면 본질적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지²⁾, 이야기(알레고리)의 제작과 해석 근저에 있을 뿐 아니라 모티브의 선택과 표현 근저에 있는, 그리고 심지어 형식적 배열이나 적용 기법상의 절차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기본 원리들을 국가, 시대, 계급,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의 기본 태도를 드러내주는, 한 창작자의 인격에 의해 질적으로 한정되고 한 작품 속에 응축되는 (작품의) 근저에 놓인 원리들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가의 세계관 혹은 작가가 작품을 만들게 한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³⁾

파노프스키가 말하는 미술작품 해석의 세 층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남자가 거리에서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는 행위(행위 모티브)와 표정(표현 모티브)을 사람들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상식적 이해는 미술작품 해석에서도 적용되며, 이것을 전(前)도상학적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식을 통해 해석된 그 의미는 자연적 의미이다. 자연적 의미의 단계를 넘어 남자가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는 행위가 ‘인사’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재된 문화적 코드 즉 서양의 문화적 코드가 전제되며, 이러한 특정 문화적 코드를 통한 행위의 해석을 도상학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행위의 규약적 의미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는 행위가 그 인물의 ‘인격’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인격은 그 사람의 시대, 국적, 사회적·교육적 배경, 삶, 환경 등에 조건 지어지며, 사물을

2) 이러한 의미의 담지체로 인식된 모티프를 우리는 보통 이미지라고 부르며, 이미지의 창의적 조합을 이야기나 알레고리라고 부른다.

Erwin Panofsky, 김울 역, 『Gothic Architecture and Scholasticism, 고딕건축과 스콜라 철학』 (한길사, 2016), p. 201.

3) 위의 책, 199~201.

바라보고 세계에 반응하는 개인의 방식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그 인물의 ‘본질적 성격’이다. 그리고 이러한 본질적 의미를 다루는 영역이 바로 도상해석학의 영역이다.⁴⁾

〈표 1〉 예술작품 해석을 위한 의미의 세 층위⁵⁾

의미의 세 층위	해석의 차원	해석의 단계
자연적 의미 (natural meaning)	상식(현상, 가시적)적 차원	전도상학적 단계 (Vorikonographische Beschreibung)
규약적 의미 (conventional meaning)	문화(가치)적 차원	도상학적 단계 (Ikonographische Analyse)
본질적 의미 (intrinsic meaning)	심적 습성, 시대정신, 세계관	도상해석학적 단계 (Ikonologische Interpretation)

미술사가인 파노프스키가 사회과학에 영향을 끼친 것은 그가 발견한 예술작품의 본질적 의미의 발견 덕분이다. 특히 작품에 응축된 시대정신, 세계관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그가 개념화한 심적 습성 개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⁶⁾ 파노프스키는 중세의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심적 습성 개념을 통해 본질적 의미가 작동하는 기제를 설명하고 있다. 아퀴나스는 심적 습성 개념을 인간의 행위에 규제적 영향을 발휘하는 그리하여 특수한 행위 방식으로 표출되는 심리적 성향으로 정의하였다.⁷⁾ 파노프스키는 아퀴나스의 개인적인 차원의 심적 습성

⁴⁾ Erwin Panofsky (2016), pp. 203~204.

⁵⁾ https://de.wikipedia.org/wiki/Erwin_Panofsky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하였음.

⁶⁾ 프랑스 출신의 사회학자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파노프스키의 심적 습성에 영향을 받아 아비투스(Habitus) 개념을 발전시켰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파노프스키가 도상해석학을 설명하기 위해 든 유명한 사례(거리에서 모자를 벗는 사람)는 지식사회학자 만하임(Karl Mannheim)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이것을 보면 파노프스키는 이미 미술사와 사회학의 연결, 정확하게는 지식사회학(Wissenssoziologie)의 차원에서 미술사를 읽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개념을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의미로 재해석하였다. 이는 파노프스키가 습성을 개인의 습성이기에 앞서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초개인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요인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파노프스키의 심적 습성 개념에 구체적인 개인들 안에 이미 집단적 요인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본질적 의미를 다루는 도상해석학은 작품의 해석에 있어 한 사회를 특징짓는 초개인적이고 공통적 심적 습성의 탐색이 핵심이다.⁸⁾ 파노프스키는 중세철학(스콜라철학)과 중세예술(고딕양식)의 유사성의 발생 원인을 심적 습성을 통해 규명하고 있다. 심적 습성은 스콜라철학의 문헌 또는 건축 작품이라는 인공물 안에 기록되는 관념의 발생 조건이자 근거이다. 이는 창작자의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지향 이면에 존재하면서 그 지향의 발현을 규정하는 사고의 습관이자 태도이다.⁹⁾

2. 선행연구와 분석틀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초반에는 남북한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주로 남북한 통일을 위한 준비 단계로 남북한 방송 교류나 이와 관련된 정책 과제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기현(2003)의 ‘남북한 방송문화교류의 현황과 과제’, 이우승(2002)의 ‘남북 방송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이주철(2003)의 ‘북한 주민의 남한 방송 수용 실태와 의식 변화’ 등이 있다.

7) Erwin Panofsky (2016), pp. 19~20.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 제2부 제1편 제49문 제3절에서 규정한 바, ‘활동에 대한 관련성을 내포하는 원리’(principium importans ordinem ad actum)이다.

8) 위의 책, p. 20.

9) 위의 책, pp. 63~64.

초반에 방송교류와 관련된 정책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200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남한사회에 유입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북한 사회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성숙희(2005)의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방송 수용’, 이민규·우형진(2004)의 ‘탈북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에 따른 남한 사회 현실 인식에 관한 연구: 문화 계발 효과와 문화 동화 이론을 중심으로’ 등으로 북한 내부 유입된 남한 방송들을 주민들이 수용하는 과정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최근에는 남한드라마, 영화, 음악 등 남한 문화콘텐츠의 유입 과정과 한류 관련 연구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윤선희(2011)의 ‘북한 청소년의 한류 읽기: 미디어 수용에 나타난 문화 정체성과 사회변화’와 전희락(2013)의 ‘북한에서의 한류 확산 과정에 대한 연구’ 김화순(2011)의 ‘북한 주민의 외부 방송 접촉 및 의식변화에 관한 실태보고서’, 박정란·강동완(2012)의 ‘북한 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상(像)’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상해석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미술, 무용, 영화, 복식 등 시각 예술 또는 이와 연관 있는 예술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예술 분야에서 도상해석학은 주로 조각, 회화, 건축, 복식, 동작(무용동작), 영상(화면) 등을 해석과 분석을 위해 활용되었다. 대표적으로 신상미(2006)의 ‘도상학적 해석을 통한 최승희의 「보살춤」 창작기법 연구’, 문명대(2010)의 ‘조선후반기 제2·3기(18·19세기: 영·정조-순조·순정기) 불상 조각의 도상해석학적 연구’, 이은지(2012)의 ‘르네상스시대 복식에 대한 파노프스키(Panofsky)의 도상학적 해석’ 윤장호(2015)의 ‘영화에서 권력관계에 대한 공간의 도상학 연구 -박찬욱 감독 영화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드라마에서 재현되는 이미지의 해석

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드라마에 재현된 가시적 이미지를 대상으로 도상해석학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심적 습성을 연구하는 것은 좁게는 북한학, 넓게는 사회과학에서 실험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서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연구자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보다 실험적인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회과학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은 새로운 렌즈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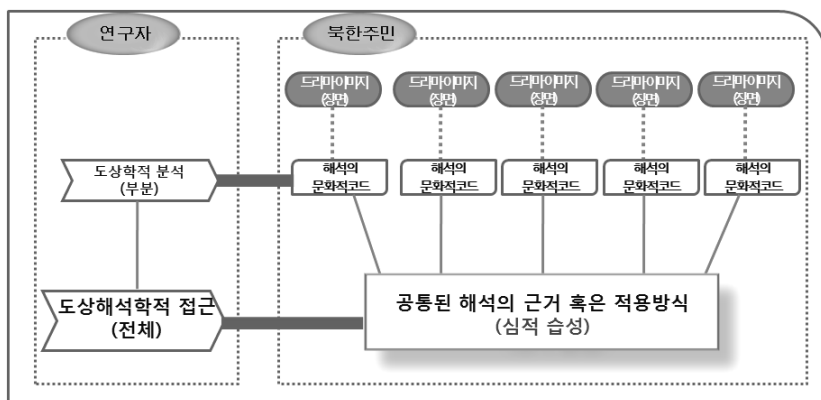
본 연구의 면담자들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남한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유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성비율(남·여)과 연령(20대에서 50대까지)을 고려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심층면담자의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면담자^{a)}

	성별	탈북시기	나이	직업	거주지역	
면담자1	남	2011년	20대	학생	평양	2016. 5. 29 2016. 10. 15.
면담자2	여	2011년	30대	장사	접경지역	2016. 7. 6.
면담자3	남	2012년	30대	군인	접경지역	2016. 7. 9.
면담자4	여	2011년	40대	교사	접경지역	2016. 6. 8. 2016. 9. 14.
면담자5	여	2011년	40대	장사	접경지역	2016. 6. 14.
면담자6	남	2011년	40대	교사	접경지역	2016. 9. 27.
면담자7	여	2011년	40대	직원	접경지역	2016. 10. 19.
면담자8	여	2011년	50대	주부	평양	2016. 7. 9.
면담자9	남	2011년	50대	관료	평양	2016. 7. 9. 2016. 9. 11.
면담자10	남	2014년	50대	군인	평양	2016. 9. 24.
면담자11	여	2007년	50대	장사	접경지역	2016. 11. 1.
면담자12	남	2007년	60대	관료	접경지역	2016. 6. 21. 2016. 10. 23.

북한 주민들의 생활세계(Lebenswelt)가 남한의 시청자들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남한드라마에 대한 해석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연구자들은 면담과정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한에서 남한드라마를 시청하였을 때 인상 깊었던 장면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북한(이탈) 주민들이 다양한 드라마의 이미지(장면) 해석에 대한 규약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북한 주민들의 남한드라마 해석의 특이점을 중심으로 이들의 문화적 코드에 대한 분석(도상학적 분석)을 하였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드라마 시청의 도상학적 접근과 더불어 연구자들은 이들의 드라마 시청에 대한 도상해석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남한드라마 장면에 대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해석을 종합하여 이들의 문화적 코드를 작동시키는 근거와 조건, 즉 북한 주민들의 심적 습성(mental habit)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¹¹⁾



10) 북한 거주 시 남한드라마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11) 연구자가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라 분석틀을 구성하였음.

Ⅲ. 본론

1. 북한 주민의 남한드라마 해석의 도상학적 분석

1) 주거공간 이미지

본 연구의 면담자들이 남한드라마의 영상 이미지 가운데 많이 언급한 것은 가옥이다. 일반적으로 가옥은 의식주에 해당하는 인간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삶의 문제이자 한 사회의 구조가 고스란히 압축된 사회적 공간이다.¹²⁾ 또한 가옥은 각 나라의 주거문화를 함축한 건축물이며, 드라마에서는 등장인물의 경제적·사회적 위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수단이다. 따라서 감독은 드라마에서 집을 재현할 때는 등장인물의 특징을 고려한다. 이와 더불어 감독들은 드라마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집을 활용하기도 한다. 면담자들 역시 남한의 시청자들과 마찬가지로 드라마에서 나타난 가옥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

“풀하우스를 봤는데, 집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이 얼마나 이뻐요. 북한에 사는 그런 집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예요. 주택인데 밖에 가로등이 다 있고, 그네까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는 계단이 있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도 그런 집은 못 쓰고 살아요. 그런 집 자체를 보지를 못했어요. 어머! 저런 곳에서 사나? 저런 집도 있네. 저렇게 밝은 데서, 창문이 커서 밖을 내다 볼 수 있는 것이예요. 도둑이 들어가지 않나? 북한에는 강도가 엄청 많거든요?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신기하죠.(면담자 2, 2016. 7. 6)”

¹²⁾ 홍 민, 『북한 리포트/북한사회를 읽는 12가지 풍경〈7〉 토막집에서 고층아파트까지 - 북한의 주거문화: (월간)北韓』 (북한연구소, 2004), p. 1.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남한드라마에서 재현된 주거공간을 보고 느낌은 새롭고 신기하다는 반응이다. 응답자들의 관심은 드라마의 등장 인물의 주거공간에서 남한의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대되어 있다.

상기 응답자의 진술에서 드러나듯이 남한드라마에서 나타난 가옥의 형태는 북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커다란 창, 마당에 설치된 그네와 가로 등, 집안에 설치된 계단 등은 북한 주민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주거 형태이다.¹³⁾ 특히 상기 응답자의 ‘집이 얼마나 이뻐요’라는 진술을 통해 ‘집이 예쁘다’라는 의미가 북한 사회에서는 부재하거나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 북한에서 집은 아름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추위와 비, 바람을 막아줄 거처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가 남한드라마의 주택과 도둑을 관련시켜 해석하는 내용 역시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북한 사회에서 치안 혹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기능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13) 주거형태가 이쁘다는 진술은 주거공간의 의미가 북한과 남한에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주거문화에서 집이 이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낯설다. 북한에서도 집은 남한에서와 같이 부의 상징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방의 개수 증가, 기능 추가(목욕탕, 수세식 변소, 베란다 시설)를 의미하지 집의 미적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4) 평양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조차 사실상 난방이 안 되었다. 단수와 단전이 일상적인 북한 사회에서 집에 미적 기능을 부여하는 계층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J. Everard, 이재만 역, 『Only Beautiful, Please: A British Diplomat in North Korea, 영국의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책과함께, 2014), pp. 29~30.

〈사진 2〉 드라마 ‘풀하우스(2004)’의 집 이미지



“가을동화에서 오빠가 살던 집이 있잖아요. 송승헌이 살던 집에 정원 있었잖아요. 북한에는 그런 집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 방도 따로 따로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는 형제가 전부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아요. 아 좋겠다. 남조선은 자기 방을 따로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당시에 우리는 집이 작기 때문에 침대를 못 뒀어요. 그런데 방에 침대가 있는 것이예요. 그 집이 너무 부러웠어요.(면담자 5, 2016. 6. 14)”

면담자 5 역시 남한드라마의 가옥에 대한 영상이미지는 북한에서 보지 못한 주거 형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송승헌이 살던 정원의 형태, 개인공간 구조는 북한의 주거 생활에서 낯선 개념이다.

과거에 비해 북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연립주택(하모니카)의 비중이 감소¹⁵⁾하지만, 하모니카집과 땅집¹⁶⁾에서 여전히 많은 주민이 살고 있다.

15) 장용석·정은미·박명규·김경미, 『북한사회변동 2015』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p. 55.

16) 북한에는 계급에 따라서 대개 정해진 크기에 집에 산다. 일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은 방 하나 부엌 하나가 딸린 것으로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불린다. 도시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복도를 따라가며 출입문이 줄지어 있는 하

〈표 3〉 북한의 집 유형¹⁷⁾

(단위: %)

조사연도 유형	2012	2013	2014	2015
아파트	19.8	24.8	17.4	33.6
연립주택(하모니카집)	42.9	48.9	63.8	34.9
단독주택(독집)	25.4	19.5	15.4	24
기타	5.6	6.9	3.4	7.5

이러한 북한의 주거문화에서 남한드라마에서 구현된 주거 이미지는 북한 주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다. 따라서 남한드라마에서 재현된 주거공간을 보고 북한 주민들이 보인 신기하다는 반응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모니카 아파트의 경우, 한 동에 80-100세대로 구성되며 각 집의 크기는 7-9평이고 내부는 방 하나와 부엌 하나로 되어 있어 상당히 과밀한 형태를 띠고 있다. 연립주택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여러 가구의 문이 연속되어 있는 하모니카 집이고, 다른 하나는 48세대를 2줄로 붙여 지은 땅집이다. 하모니카집의 경우 부엌 하나 방 하나만 있는 집이 15-50m 정도 길게 붙어 있는 형태이다. 땅집은 4세대, 많게는 8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인데 집마다 방 1칸에 부엌이 있으며 뒷집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과밀하다.

홍민, 『북한 리포트/북한사회를 읽는 12가지 풍경(7)』 토막집에서 고층아파트까지 -북한의 주거문화: (월간)北韓』 (북한연구소, 2004), pp. 5~6.

17) 장용석·정은미·박명규·김경미, 『북한사회변동 2015』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p. 55~56.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엔인구기금(UNFPA)와 북한 통계국의 공동으로 조사한 것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거주형태를 조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 사회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비중이 비슷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진 3〉 북한의 집¹⁸⁾



남한드라마에서 재현된 가옥 이미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해석이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옥탑방(명랑소녀 성공기)에 대한 해석이다.

“명랑소녀 성공기에서 주인공 가정은 옥탑방에서 힘들게 사는데, 북한에 있을 때에는 그 옥탑방도 좋게 생각했어요. 문 열고 나오면, 무슨 부추도 있고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면담자 8, 2016. 7. 9)”

〈사진 4〉 ‘명랑소녀 성공기(2002)’와 ‘미녀 공심이(2016)’의 옥상 이미지



면담자 8의 진술처럼 옥탑방은 드라마에서 잘 보여 주듯이 남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주거 형태이지만 열악한 주거공간에 생활하

18) 통일부 (2016) <http://blog.unikorea.go.kr/418>.

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옥탑방마저도 긍정적 의미로 해석된다. 남한의 가난한 계층의 주거 형태가 북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주거공간으로 해석되는 것 역시 북한 주거문화의 특수성 때문이다.¹⁹⁾

2) 야경 이미지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전력난은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다.

“90년도부터 전기가 잘 안 오니깐 사람들이 전기가 와도 텔레비전을 딱 쳐도 중계를 안 해요. 중계소까지도 정전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가 오자마자 중계가 안 되요. 한 참 뿌지뿌지 하다가 중계가 올 때도 있고, 또 중계를 잘 쓰지도 못해요.(면담자 5. 2016. 6. 14)”

“북한이 2005년만 해도 저녁 12시가 지나서 불이 올 때도 있고, 일요일 같은 때에는 낮에도 불이 왔어요.(면담자 5. 2016. 6. 14)”

“일반 사람들은 전기를 전혀 못 받아서피 해요.(면담자 2. 2016. 7. 6)”

전력난은 북한에서 텔레비전의 기능을 바꾸어 놓았다. 여가생활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텔레비전 시청은 전력난으로 인하여 여가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거기에 무슨 텔레비를 보고파서 트는 것보다도 그저 자동적으로 불이 안 왔다가 불이 오니까는 그저 불이 왔다는 반가운 기분에 그저 텔레비를 틀어 놓고는 보지는 않아요.(면담자 8. 2016. 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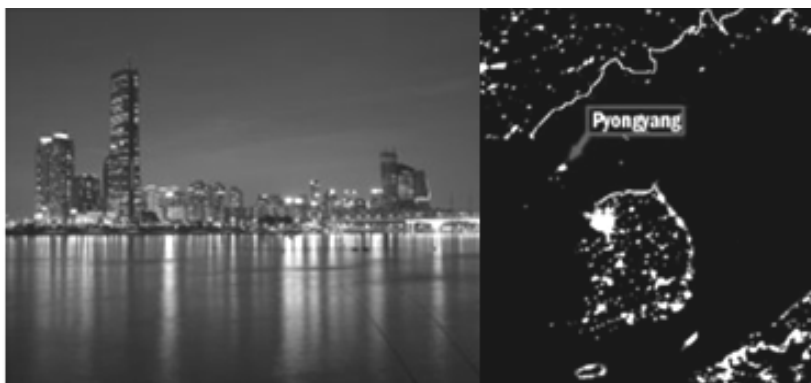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은 주민들의 남한드라마 해석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 남한드라마에서 재현된 야경 장면(단순히 드라마 배경으로

¹⁹⁾ 북한 주민들이 옥탑방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드라마에서 옥탑방에 대한 현실적 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옥탑방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생활을 통해 옥탑방에 대한 환상이 깨진다.

사용된)은 북한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미지인 것이다.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면 번쩍번쩍하는 야간 거리도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배경에 더 관심이 가요. 전기가 어디서 나오지?(면답자 3, 2016. 7. 9)”

〈사진 5〉 드라마속의 서울 야경 이미지와 인공위성으로 본 북한의 야경



남한드라마에 재현된 야경은 전기 공급이 제한된 북한 주민들에게 신 세계를 보여준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밤은 응당 깜깜하다고 생각해왔던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드라마의 야경이 주는 의미는 가히 문화적 충격이라 할 수 있다.

사진에서 잘 드러나듯이 불 꺼진 밤하늘 풍경은 전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평양에서조차 전력이 모자라 라디오는 물론이고 TV나 컴퓨터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다른 지방도시와 더욱이 농촌 및 산골지방은 아예 전기 등불을 포기하고 살 정도이다. 북한의 총 발전설비용량은 2013년 기준 724만 kw(킬로와트)이고, 발전량은 221억 kwh이다. 발전설비용량은 남한의 1/12 발전량은 1/23에 불과하다. 그나마 송배전 시설의 노후로 생산전력의 20~30%를 상실하고 있다.²⁰⁾

3) 의상 이미지

드라마의 야경 장면과 더불어 남한드라마 배우들의 옷차림 역시 북한 시청자들의 관심거리이다. 과거에 비해 북한주민들의 옷차림이 다양해졌다고 하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이들은 여전히 한정된 수의 의복을 입고 있으며 주로 짙은 색 계통의 옷을 주로 입는다.²¹⁾ 사회주의 경제구조에서 북한의 의복코드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개인의 멋, 유행이 중시되는 것과는 달리 노동에 편리한 실용성에 중점을 둔 형태의 패션이 나타난다.

〈사진 6〉 북한의 의상^{22), 23)}



²⁰⁾ 한국방송(KBS), 『남북의 창』, 2015년 1월 31일자.

²¹⁾ 오늘날 북한 일반 주민들의 옷차림은 다소 다양하다고 할 수 있지만 생활고로 말미암아 옷을 여러 벌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일반 주민들은 점퍼나 스웨터 인민복 작업복 차림이며, 주로 짙은 색 계통의 옷을 입는다. 북한에선 점퍼가 제일 많이 유행되고 제일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다. 웬만한 옷감이면 남녀 구분 없이 가장 많이 해 입는다. 북한은 여름이 짧기 때문에 점퍼 한 벌만 있으면 봄부터 가을까지 입을 수 있다. 겨울 외투도 바지감보다 좀 더 얇은 옷감 안에 솜을 넣고 누벼 만들어 입는다. 북한에선 유행이라 해도 치마 주름이 두 개였다 세 개로 변하는 정도지 완전히 새로운 유행은 없다. 한현석, 『북한의 의복문화 ; “북한 스커트엔 앞트임이 없다”: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2015), p. 82.

이렇게 제한된 북한 주민들의 의복 문화코드에서 남한드라마에 재현된 배우들의 의상은 매우 낮설고 신기하다.²⁴⁾

“새롭게 느낀 것은, 드라마를 보면 배우가 매일 매일 옷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는 것이예요. 북한 생활 자체가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리 잘 입는다 해도 매일 바뀌 입고 이리저리를 않아요. 드라마에서 남자의 집에 있는 그 옷장을 봤는데, 신발, 시계, 그 옷의 형태, 깜짝 놀랐거든요.(면담자 2, 2016. 7. 6)”

〈사진 7〉 드라마 속의 의상 이미지



이러한 형태의 의복코드가 일상화된 북한에서 개인의 연출에 중점을 두고 옷을 입는 드라마의 장면은 이들과는 상이한 형태의 의복코드를 보

²²⁾ <http://m.blog.daum.net/paulilhchoi/10927>.

²³⁾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alamin&list_id=13570733.

²⁴⁾ 남한 배우들은 자신의 이미지, 배역 그리고 광고를 위해 의도적으로 옷차림을 연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에서 사람들이 입는 옷차림보다 과도한 노출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장면의 강조를 위해 매 장면마다 다양한 의상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면담자가 남성들이 신발, 옷, 악세사리를 통해 연출하는 장면에 대해 놀라는 것 또한 흥미로운 반응이다. 북한에서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과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역들은 다양한 수단과 표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4) 여성 운전자와 남성의 가사 참여에 대한 이미지

남한드라마의 영상 이미지 중에 등장인물들의 사소한 행위에 면담자들 반응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운전 장면과 남성의 가사와 양육에 참여하는 장면이다.²⁵⁾

“북한은 여자 운전기사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군에 있고, 농촌에 여자가 트랙터 운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트랙터나 화물차를 운전했으면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는데, 승용차인데, 좋은 차를 그냥 운전해요. 전화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도 하고, 운전이 완전히 몸에 배인 거잖아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면담자 9, 2016, 9, 11)”

면담자 9의 진술을 통해 북한에서 여성 운전자가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자동차의 80%가 군용 및 화물 트럭인 북한에서 여성 운전자의 수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제조 기술수준도 낙후되어 아직도 대부분의 자동차가 기계식이고, 운전면허를 발급을 위해 차량수리까지 해야 되는 북한에서 운전은 당연히 금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이러한 북한의 자동차 문화에서 면담

²⁵⁾ 제가 그것을 봤을 때 문화적 충격이 굉장히 커요. 저기는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데라 말이에요. 부모님들을 모셔야 되고.....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아~ 이게 우리하고 왜 다르지? 그래서 자본주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면담자 3, 2016, 7, 9).

²⁶⁾ 남한은 시장을 통해 자동차의 운전 기능과 수리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즉 운전자는 수리비만 지불하면 자동차의 정비지식이 없어도 정비소에서 통해 자동

자 9가 보인 반응 역시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여자들도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참 신기한 거예요. 북한에서 여자는 운전 할 수 없어요. 법으로 단속을 하고, 여자는 오토바이도 못 타요. 판단능력이 남자들보다 떨어져 사고가 많이 난다고 못 타게 해요(면담자 2, 2016. 7. 6).”

〈사진 8〉 드라마에서 여성운전 장면



북한의 전통적인 여성상은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활동과 ‘혁명가의 아내, 혁명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중첩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의 혁명가적 이미지보다는 전통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에 현실적으로 각인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가부장제가 아직도 엄격히 적용되며, 여성은 남편에 대한 절대 복종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²⁷⁾ 북한 사회는 1990년대 후반 장마당의 활성화로 여성들의 경제 참여가 증가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봉건적인 가부장적 사회로 남성의 가사와 육아활동에 대한 참여가 일상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에서 북한의 여성들은 전통적인 부

차를 수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자동차 운전과 정비 기능이 통합된 북한에서는 운전자가 자동차 수리 또한 할 수 있어야 한다.

²⁷⁾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이해』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p. 290.

덕을 지닌 주부로서의 역할(가사전담)과 사회주의 건설현장으로 조직 동원 등의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²⁸⁾ 이러한 북한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코드에서 남한드라마에서 남성이 빨래하고 부인에게 꼼짝 못하는 장면은 북한의 가정에서 낯설다.

“앞집 여자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뚱뚱한 사람(남자배우)이, 세탁기에서 계속 집에서 빨래 해주고 할 때에 처음에는 놀랐어요. 빨래를 남자가 (...) 북한에서는 남자가 집안일 안 해요.(면담자 8, 2016, 7. 9)”

“북한드라마는 가부장적이고, 여기 남한드라마에서는 여자들이 좀 쎈 편으로 나오잖아요. 남자들이 꼼작 못하고, 여자들에게 잘 맞추어 주고 그런 것으로 나오잖아요.(면담자 7, 2016, 10, 19)”

〈사진 9〉 드라마에서 남성의 이미지



2. 북한 주민의 남한드라마 해석의 도상해석학적 접근: 북한 주민의 심적 습성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의 남한드라마 해석에 있어 드라마의 다양한 장면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각각의 문화코드에 대해 설명하였다.

²⁸⁾ 임순희, 『북한 여성의 삶』 (해남, 2006), p. 89.

여기서는 북한 주민들의 각각의 문화코드(주거문화 코드, 패션 코드, 남녀관계에 대한 코드 등)에 내재된 공통적인 특성인 심적 습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드라마를 해석하는 조건이자 근거인 심적 습성은 만성적인 결핍과 연관되어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를 결핍경제로 설명²⁹⁾하지만 북한의 경제상황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심각한 결핍 현상을 보이고 있다. 남한드라마에 나타나는 주거 이미지, 의상, 야경 장면, 여성 운전자의 장면에 나타나는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경제적 차원의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경제자원의 결핍은 전술하였듯이 북한 주민들의 주택에 대한 미적 해석기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주택의 기능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경제적 결핍은 주택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패션 코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북한 주민들은 점퍼를 즐겨 입는데 이러한 이유는 점퍼 한 벌로 봄부터 가을까지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퍼는 결핍경제에 적합한 의복인 것이다. 결핍은 의상의 형태뿐만 아니라 색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짙은 색 계통의 옷을 입는데, 이러한 옷에 대한 색감 역시 결핍경제와 관련이 있다.³⁰⁾ 의상의

29) 헝가리의 경제학자 코르나이(János Kornai)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결핍경제(Mangelwirtschaft, Shortage economy)를 개념화 하였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화폐를 가지더라도 살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사회에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형성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는 배급제를 실시하여 모든 이에게 똑같이 물건을 배급한다. 그러나 배급은 노동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려 노동에서도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노동을 통한 상품 생산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 만성적 초과수요의 악순환이 발생하여 경제 자체에 부족이 만연하게 된다.

강명구, “János Kornai의 비교경제시스템 연구,”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5), p. 27.

30) 이렇듯 결핍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

유행과 관련해서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보다는 과거의 것을 조금씩 수정하는 형태(예를 들면 치마 주름이 두 개였다가 세 개로 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남한 사회에서 의상의 유행은 소비 개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유행과의 불연속성을 강조한다면 결핍이 내재화된 북한 사회에서 의상의 유행은 과거의 단절이 아닌 과거의 형태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한된 변화라는 특징을 갖는다.³¹⁾ 결국 소비가 억제되고 결핍이 내재된 사회구조는 북한 주민들의 의복 형태, 색상, 유행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만연된 결핍은 북한의 주거, 의상뿐만 아니라 생활세계 전반에 드러난다. 북한 사회의 만성적 결핍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경직시키고 보수화(변화 없는 단조로운 삶)시킨다.

결핍과 더불어 북한 주민의 심적 습성은 불균형적(비대칭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결핍이 북한 사회의 경제적인 특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북한 주민의 심적 습성의 구조라고 한다면 불균형적 관계는 정치적인 차원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미드(George Herbert Mead)에 따르면 인간의 자아는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주격자아(I)와 사회적 규범과 역할기대를 사회화하는 목적격 자아(me)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³²⁾ 북한 정권은 주민의 자아 형성에 있어 주체적인 주격자아(I)의 발전을 억제하고 사회적인 목적격 자아(me)를 발전시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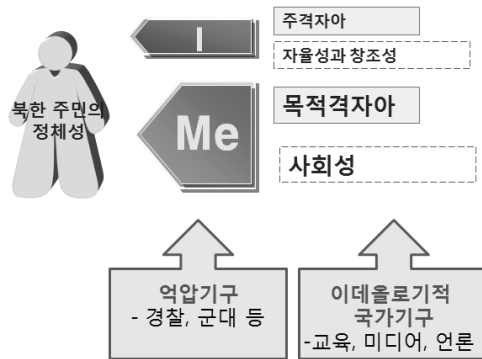
리적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란의 영화 “천국의 아이들”은 결핍경제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심리를 잘 보여준다.

31) 이를 정치학적으로 설명하면 남한 사회의 의상유행은 과거와의 단절이 강한 변화라고 한다면 북한의 의상유행은 계승을 통한 변화라는 점증주의(Incrementalism)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32) Mead, George Hebert,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정신·자아·사회: 사회적 행동주의자가 분석하는 개인과 사회』, 나은영(역) (한길사, 2010), pp. 262~265.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자아의 불균형 성장을 통해 북한의 정권은 체제에 순응하는 주민을 양성하고자 한다.³³⁾ 목적적 자아의 과잉성장으로 인한 자아의 불균형성은 정치·사회인 차원에서 제한된 변화만을 구조화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으로 변화보다는 질서라는 가치에 초점을 두게 된다.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지향적 특성은 우선 정치적인 차원에서 나타난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면접한 대부분의 북한 이탈 주민들은 선거를 통한 정권 변화에 대해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뿐만 공권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등도 이러한 주격자아의 저발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미드의 이론을 활용한 북한 주민의 자아형성³⁴⁾



33) 주격 자아(I)에 비해 목적적 자아(me)가 과잉 성장된 인간을 지칭하기 위해 독일 출신의 사회학자 마르쿠제(Herbert Marcuse)는 “1차원적 인간(One- Dimensional Man)”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동독 출신의 정신분석가 마츠(Hans-Joachim Maaz)는 동독 주민들의 자아의 불균형성장의 결과 나타나는 “감정정체(Gefühlsstau)”라는 사회심리적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마츠에 따르면 억압된 사회에서 성장한 동독 주민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없는 감정정체 문제를 겪는다.

34) 현주, 『남한드라마 시청이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 등에 미치는 영향』 (통일부, 2016), p. 22.

다음으로 북한 주민의 질서지향적 태도는 전통적인 유교적 질서와 연결된다. 드라마의 해석을 통한 관계의 불균형성이 드러나는 대표적이 관계가 바로 남녀관계이다. 여성 운전자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희석화된 북한에서 운전은 남성들만의 영역, 즉 여성이 배제된 공간이다. 운전석과 달리 북한의 주거공간에서 부엌은 금남의 공간이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가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의 가사와 육아를 돕는다는 것은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남녀관계 이외에 관계의 비대칭성이 드러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개인과 집단의 관계이다. 주거공간의 해석에서 잘 드러나듯이 북한의 주거공간에서 개인보다는 집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주거공간에서 방은 가족 공동의 공간이며 북한 주민들이 사는 집의 대표적인 형태인 땅집과 하모니카집은 이웃들에게 노출된 공동주택의 개념이다. 이러한 주거공간에서 개인적인 공간은 제한되고 집단주의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관계의 비대칭성은 개인과 집단,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수령과 인민, 간부와 비간부, 군인과 민간인 등 모든 사회적 공간으로 증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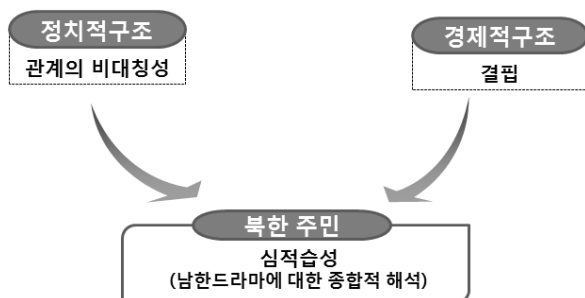
자동차는 북한에서 결핍을 잘 보여주는 개념인 동시에 관계의 불균형성 또한 잘 보여준다. 북한에서 대부분의 자동차가 화물트럭이어서 개인 승용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 흥미로운 것 가운데 하나는 면담자 2가 언급한 북한의 도둑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일상적인 범죄 처리에 대해 매우 허술한 반면 정치범 처리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서 대조를 보인다.³⁵⁾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튀세르(Louis Althusser)에 따르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 검찰, 군대와 같은 억압적 국가기구 이외에 학교, 종교, 언론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억압기구와 이데올로기적 기구를 통해 주민들의 목적적 자아를 강화하고 주격 자아를 억제한다.

³⁵⁾ J. Everard (2014), p. 128.

지금까지 설명한 북한 주민들의 심적 습성의 구조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3〉 북한 주민들의 심적 습성 구조³⁶⁾



IV. 결론

연구자는 북한 주민들의 남한드라마 해석에 대한 도상학적 분석과 도상해석학적 접근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코드와 이들 문화코드에 내재된 북한 주민들의 심적 습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제 연구자들은 서론으로 돌아가 당시 북한 학생이 단편영화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 학생의 단편영화 해석에 대

³⁶⁾ 연구자는 북한 주민들의 심적 습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이론적으로 경제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두 차원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심적 습성은 성, 세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의 심적 습성은 시장화의 진행 정도, 평양 거주자 유무, 연령에 따라 결핍과 관계의 비대칭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연구자는 북한 주민들의 심적 습성 개념이 사회적 변수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차이를 후속연구에서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한 문화적 코드를 보기로 하자. 다른 외국인 학생들은 자신 옆자리에 앉은 흑인 청년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터키인 등 독일의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불평하는 할머니의 태도를 비난하지만, 북한 학생만은 예외적으로 할머니의 승차권을 삼킨 흑인 청년의 불경한 태도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북한 학생의 해석은 북한에서 외국인에 대한 태도나 개념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북한에서 외국인의 수는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 공간 역시 제한³⁷⁾되어 있어 지방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평양시민들에게도 낯선 개념이다.³⁸⁾

외국인들의 수가 지극히 제한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국인 이주자, 외국인 노동자라는 사회적 개념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한 독일 할머니의 비판을 이해할 수 없다. 대신 유교적 전통이 강한 사회에 자란 북한 학생은 흑인 청년이 할머니의 승차권을 삼키는 장면은 매우 비도덕적 행위로 각인되었다.

독일의 단편영화 “무임승객(Schwarzfahrer)”에 대한 북한 학생의 해석을 통해 북한 주민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이들에 내재된 유교코드를 읽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한 학생의 해석에 내재된 심적 습성 역시 연구자들이 도출하였던 만성적 결핍과 비대칭적인 관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북한 학생의 단편영화에 이해에는 북한 사회에서의 외국인의 결핍, 원주민과 외국인 비율의 비대칭성, 유교에서 강조하는 경로우대사상(노인과 젊은이의 비대칭성)이 작용하고 있다.

■ 접수: 2017년 5월 1일 / 심사: 2017년 5월 4일 / 게재확정: 2017년 6월 1일

³⁷⁾ 평양의 외국인들은 여행 제한뿐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경우와 다르긴 하지만 정치적 통제를 받았다. 외국인들은 때때로 미행도 당한다. J. Everard (2014), p. 196.

³⁸⁾ 이러한 북한 주민의 외국인과 같은 태도를 추체험(Nachvollziehen)하기 위해 우리는 조선시대의 외국인 선교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구. “János Kornai의 비교경제시스템 연구.”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5).
- 김화순, “북한주민의 외부방송 접촉 및 의식변화에 관한 실태보고서.” 『2011 제4회 북한전략센터 학술세미나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접촉실태와 의식의 변화』 (북한전략센터, 2011).
- 문명대. “조선후반기 제2·3기(18·19세기: 영·정조-순조·순정기) 불상조각의 도상해석학적 연구.” 『강좌미술사』, 제40호 (한국미술사연구소, 2010).
- 박정란·강동완(2012).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像).” 『통일연구논총』, 제21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12).
- 성숙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방송수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신상미. “도상학적 해석을 통한 최승희의 「보살춤」 창작기법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제10권 (한국무용기록학회, 2006).
- 윤선희. “북한 청소년의 한류 읽기: 미디어 수용에 나타난 문화 정체성과 사회변화.” 『한국언론학보』, 제55권 1호 (한국언론학회, 2011).
- 윤장호. “영화에서 권력관계에 대한 공간의 도상학연구 -박찬욱감독 영화를 중심으로.” 『영상기록연구』, 제22호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 2015).
- 이기현. 『남북한방송문화교류의 현황과 과제』.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3.
- 이민규·우형진. “탈북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에 따른 남한사회 현실 인식에 관한 연구: 문화 계발 효과와 문화동화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8권 6호 (한국언론학회, 2004).
- 이우승. “남북방송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정책연구』, 제5월호 (방송통신위원회, 2002).
- 이은지. “르네상스시대 복식에 대한 파노프스키(Panofsky)의 도상학적 해석.”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12권 3호 (한국패션디자인학회, 2012).
- 이주철. “북한주민의 남한방송 수용실태와 의식변화.” 『통일문제연구』, 제40호 (평화문제연구소, 2003).
- 임순희. 『북한 여성의 삶』. 해남, 2006.
- 장용석·정은미·박명규·김경미. 『북한사회변동 2015』.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전희락·박종렬. “북한에서의 한류 확산과정에 대한 연구.” 『평화학연구』, 제14권 4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3).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이해』.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통일연구원.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센터, 2014.

한현석. 『북한의 의복문화 ; 북한 스커트엔 앞트임이 없다: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2015.

홍 민. 『북한 리포트/북한사회를 읽는 12가지 풍경〈7〉 토막집에서 고층아파트까지 - 북한의 주거문화: (월간)北韓』. 북한연구소, 2004.

현 주. 『남한 드라마 시청이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 등에 미치는 영향』. 통일부, 2016.

Maaz, Hans-Joachim. *Die Entrüstung. Deutschland, Stasi, Schuld und Sündenbock*. Berlin, 1992.

Mead, George Hebert. 나은영 역.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정신·자아·사회: 사회적 행동주의자가 분석하는 개인과 사회』. 한길사, 2010.

Everard, John. 이재만 역. 『Only Beautiful, Please: A British Diplomat in North Korea, 영국의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책과 함께, 2014.

Panofsky, Erwin. 김을 역. 『Gothic Architecture and Scholasticism, 고딕건축과 스콜라 철학』. 한길사, 2016.

한국방송(KBS) 『남북의 창』, 2015년 1월 31일

통일부(2016) <http://blog.unikorea.go.kr/418>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alamin&list_id=1357073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y4494&logNo=50155773433>

https://de.wikipedia.org/wiki/Erwin_Panofsky

The Analysis on North Korean mental habit through Interpretation of South Korean Dramas

Hyun, Ju (Kyonggi University)

Ahn, Jiho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bout 70 years ago, an Art Historian Erwin Panofsky from Germany wrote a small quantity book as know as "Gothic Architecture and Scholasticism". In this book, Panofsky investigated Mental Habits because of Mental habits work on both Medieval Art and Scholar. Thus Panofsky explained homology and similarity. In this study, researcher reveals the North Korean Mental Habits through Iconography developed by Panofsky. First of all researcher investigated North Korean Defectors to form various images which were impressed by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searcher analyzed their interpretations. Through this, researcher draws each of cultural codes inherent North Korean Defectors like as dress code, housing concept, male and female related officials. After researcher finished Iconographical Interpretation about drama images, reveal North Korean Mental Habits that can be called as common condition or operation method. Researcher drew Deficiency and Relationship Asymmetry as North Korean Mental Habits through Iconographycal Approach about Interpretation of North Korean about South Korean Dramas.

Key words: Erwin Panofsky, Iconology, Mental habits, South Korean Dramas.

현주(Hyun, Ju)

서울대학교에서 체육교육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기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안지호(Ahn, Jiho)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